

참된 인간을 기르는 좋은 교육으로 동산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인 본교에서 35년간 근무하고 정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장기를 제외하면 삶의 궤적이 모두 동산에 있으므로 감히 '동산이 곧 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초창기 지어졌던 건물이 남아 하나둘 철거되며 새 건물로 단장되고, 나이테만큼 커 나가는 교정의 나무들을 보았고, 무엇보다도 1만여 명의 학생들을 제자로 두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많은 기쁨과 보람도 있고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과 후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산에는 수많은 분들의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과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문득 영원한 동산의 계주(繼走) 어느 지점 바톤을 이어받은 주자(走者)였다는 책임감에서 <동산 80년사>의 일부분이 교단 성적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각자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투철한 교육철학에 의해 개교하였고, 훌륭한 선배 선생님들에 의해 발전해 왔던 동산을 이어받아 제대로 지키고 있었는지 반성하는 마음입니다.

10년 전 교감으로서 '동산 70년사'를 집필하는 데 관여하였고, 100년사 간행을 대비하여 70년사를 수정 보완하며 최근 10년사를 정리하는 취지로 '80년사' 발간을 기획하였습니다. 동산 8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장구한 세월 속에 이루어진 많은 교육활동과 사업들이 모두 귀중하고, 가슴 벅차게 감동적인 것, 동산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도 있고, 간혹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80년사 발간에 즈음하여 동산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지역사회에서 동산의 이미지는 어떠한지? 동문들에게 동산은 어떤 의미인가? 동산의 미래는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산은 국가나 종교재단이 아닌 민족주의자 선각자님들에 의해 개교하였고, 개인의 전 재산이 기부되어 재단이 설립된 학교이므로 건학이념은 '교육을 통한 민족애의 실현'입니다.



동산고등학교장
최기형

이런 정체성은 5만여 동문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교훈 '신의(信義)'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신의는 '옳음을 믿는 마땅한 도리, 거래와 조국에 대한 충정'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더불어 사는 마음, 경로효친,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실천한 80년 동산의 교육활동에 드러나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동창회의 장학사업 또한 건학이념과 '신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많은 동문들이 곧 동산의 얼굴입니다. 학교를 방문한 외부 인사들이 학생들을 보고 '인사를 잘한다, 착하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졸업생들과,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인성이 참된 재학생들의 모습이 곧 지역사회에서 바람직하게 평가되는 동산의 이미지입니다. 동산인들이 곧 동산이므로, 동산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이 동산의 역사입니다.

80년사 발간에 도움을 주신 많은 동문님들과 집필에 수고하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지극한 모교애와 후배사랑으로 학교를 성원해주시는 동문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동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참된 인간을 기르는 좋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